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지요?

효자제일교회 전도사·홍 순관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들렸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을 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병어리 귀신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 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쫓아 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둔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개역, 마가복음 9:14~24]

나 중에 이 본문으로 결론을 내기로 하고 그냥 간단하게 하나 물어봅시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지금 아주 급하지요? 뭐가 있어야 돼요? 당장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 필요하지요?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의 아버지가 지금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박용규)... 있어요. (여러명)

이렇게 갈려야 공부가 되는 겁니다. (웃음) 다 '있어요' 이라면 아무 것도 할 게 없어요. 그런데 반은 '있어요', 반은 '없어요'라고 해야 공부가 재미있어질 징조입니다. 어느 쪽부터 볼까요? 있어요? 그럼 '없어요' 쪽에서 반론을 한 번 해 보시죠.

24절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박용규)

그래 거기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또 할 말 없어요?

그 앞에 내가 믿나이다. (이필환)

그렇죠. 앞에 믿나이다 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뒤에 있습니다. (박용규)

그렇죠. 중요한 건 뒤에라? 그런 걸 미판식이라 그러합니다. 그럼 앞에 중요한 게 있을 때에는? 두팔식이 라 하죠. 이 글이 두팔식인지 미판식인지 어떻게 알아요?

믿음이 없다는 건 자기의 겸손함이고. (이옥엽)

아, 그럼 믿음없다는 건 겸손함이고 진짜는 믿나이다 그래요?

앞의 믿음하고 뒤의 믿음하고 믿음의 성격이 다릅니다. (이필환)

아! 그럼 진짜 어려워지는데요? 믿음의 종류가 있다는 말이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강울)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

예. (일부)

없다고 하신 분 대답해 보시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어떤 믿음이냐는 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서의 믿음이 아니고 단지 어떤 병 고침을 받은, 의사라고 할까 그런 것에 대한, 이적을 행한 사람으로서의 믿음. (박용규)

그럼 이필환 집사님하고 학파가 같은 학파네요?

믿나이다 할 때는 예수님이 내 아이를 다른 사람을 치료한 것처럼 내 아이도 낫게 해 줄 것은 믿는데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다고 할까. (김혜영)

그것도 같은 학파네요. 그러니까 믿음의 종류 문제가 걸려 있네요? 그죠? 그쵸하고 넘어갈까요? 그래놓고 잠시 접어 둡시다. 잠시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끝에 가서 매듭을 지어 볼게요.

안다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알 수 있는 방법에 뭐가 있죠?

보고.

보고 알지요? 보는 것도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죠. 또 있어요?

듣고.

예. 그것도 보는 겁니다. 들어본다고 하잖아요.

배우는 거.

배우는 거요? 맞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배우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배우는 방법으로 보는 것이 제일 먼저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러죠? 이것도 보는 것의 중요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보고, 맛도 보고, 사람은?

겪어보고...

그~렇죠. 사람도 보고 아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아는 것이 다 보고 아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보고 아는 게 맹점이 있어요. 사람을 겪어보면 다 알 수 있나요? 몰라요?

몰라요.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몰라요. (김은옥)

지금 결혼한지 몇 년 되었지요?

16년이요. (김은옥)

16년이나 겪어봤으면 이제 알겠네요?

그래도 잘 몰라요. (폭소)

아니? 김 집사님이 머리가 나쁜 거예요? 아니면 박 집사님(담편)이 복잡한 거예요?

오리무중 속에 사나봐요. (김혜영)

아마 그럴 걸요. 평생을 겪어봐도 다 이해하기가 어려울 걸요. 그러면 겪어보고 안다는 말은 맞아요? 틀려요?

조금만.

겪어보면 조금 안답니다. 보고 아는 것 중에 맛본다는 것도 있는데 맛보면 아나요? 맛보면 알 수 있는 게 있긴 있는데 반면에 맛봐도 알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전라도에 가면 아주 좋은 음식 중에 홍어를 삭혀서 만든 요리가 있다 그러데요. 경상도 사람이 그 요리를 처음 먹으면 아마 기겁을 한다 하던데요.

썩은 냄새가 나니까...

먹어보면 안다고 했는데 왜 먹어보고 기겁을 하는 거죠? 자기가 아는 맛은 먹어보면 알지만 모르는 맛은 먹어본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파라과이에 가 계신 선교사님이 모처럼 고향 음식 한번 한다고 된장을 끓였답니다. 동네에 난리가 났대요. 어디서 화장실 푸나? 하구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 그 냄새를 맡으면 구수~하답니다. 그 쪽 사람들은 그게 화장실 냄새하고 구별이 안되는 겁니다. 냄새 맡아보면 아는 거 아니예요?

청국장이 그래요.

청국장요? 선교사님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집에서 먹는 된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끓였는데 그렇게

되었답니다. 말해보면 안다는 말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냄새도 아는 사람이 말아야 알지 모르는 사람은 말아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거의가 보고 아는 것인데 보고 안다는 것이 완벽한 게 아니고 사실은 아주 작은 일부분일 뿐입니다. 전형적인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우리는 사물을 눈으로 보고 알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다 눈은 단지 그냥 감각을 받아들이는 센서밖에 안된다. 보는 것은 머리로 본다는 거예요. 눈이 받아들이는 정보를 두뇌가 해석을 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다. 이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분이 묘한 안경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안경이 망원경처럼 튀어 나왔는데요 상이 눈에 들어가면 망막에 똑바로 서도록 만들었어요. 일반적으로 보면 상이 눈에 거꾸로 서 있어야 우리가 정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렌즈를 조합을 해 가지고 상이 똑바로 맺히는 안경을 만든 겁니다. 그 안경을 쓴 사람은 눈뜨고 있을 때는 항상 이걸 써야 합니다. 잠잘 때만 벗어 놓고, 눈뜨기 전에 먼저 안경을 쓰고 눈을 뜹니다. 처음에는 책상에 마주 앉게 해 놓고 사과를 굴리면서 잡아 보라고 하는 거지요. 처음에는 이걸 못 잡아요. 상이 거꾸로 되어 있으니까. 상상을 해 보세요. 일단 이 사람에게는 세상이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사과를 두르르르 굴려 놓으니 천장에서 굴리가는 것 같은 것 아닙니까? 그걸 못 잡아요. 나중에 연습을 거듭거듭 한 뒤에 그것을 잡아요. 그 다음엔 일어서서 돌아다녀요. 그 실험의 끝에는 이 사람이 비행기 조종까지 하고 땅에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보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머리로 보는 것이다. 우리의 눈이 완벽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보고 알 수 있으면 피카소 그림 보셨어요? 눈물 한번 흘려 보셨어요? 돈 많이 들어서 사고 싶은 생각 들었어요? 그거 왜 사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그림값지가 많으니까. (박용규).. 이해를 못하니까.

그걸 그림값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 그림을 사기 위해 막대한 돈을 투자한 사람은 무슨 차이지요?

느낌의 차이요.

느낌의 차이요? 솔직히 말하면 보는 눈이 없는 거죠. 봐도 모르는 거죠. 저는 옛날에 어느 친구하고 음악회에 갔는데 비싼 돈 들여 가지고요 저는 그냥 가슴을 떨어가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이 자식이 옆에서 코 끌고 있어요. 왜 그래요?

보는 눈이 없어서 (다수)

아니? 음악을 눈으로 봐요? (폭소) 듣는다고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듣고 감격을 하고 흥분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자는 거예요. 왜 그래요? 듣는다고 다 아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무슨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잘 알아들은 것 같아서 설명은 이만하고 정돈을 해 봅시다.

감각과 관련된 것은 보고, 느끼면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완전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봐야 알지' 하는 말을 너무 즐기면 안됩니다. 보아서 알 것 같으면 연애 결혼한 사람은 절대로 이혼 안 하세요? 연애 결혼하고 중매 결혼하고 어느 게 이혼 확률이 높은지 아십니까? 연애가 높아요. 안 보고 결혼한 중매보다는 연애해서 결혼한 사람들의 이혼율이 높아요. 왜냐하면 본다고 아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하고나 그냥 결혼해 버리세요. (웃음) 왜? 어차피 내가 고르고 고르고 애를 썼는데... 그게 완전하지 않거든요. 그럼 뭐가 완전한데요? 차라리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다른 사람의 눈이 더 정확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누가 소개시켜 주거든랑 아무 소리 말고 가버리되 단 그 다음부터 주의하고 신경쓰고 노력하는 게 어찌면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지 모릅니다. 어차피 결혼은 위험한 도박입니다. 연애를 아무리 오래도록 해도 참 위험한 도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람은 어차피 본다고 알 수 없는 것이니까요.

여기 좋은 예가 있잖아요. 결혼해서 16년이나 살았는데도 잘 모르겠다는 판이니...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줘봐 믿을 게> 하는 사람은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보여줘도 제대로 못 보는 판에 하나님을 보여주면 어찌겠다는 말이지... 우리의 감각과 관련된 것들은 보면 대충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1차원적인 것 혹은 감각적인 차원이라고 합니다. 혹은 동물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동물적인 차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처음 이 글을 쓰기 시작할 때 어디서 힌트를 얻었냐 하면 영어 시간에 문장을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이게 뜻이 뭐냐고 물으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애들이 단어 4개밖에 안되는데 그것도 몰라? 그래서 다시 들려주었어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날 제가 독이 올라가지고 너희들이 알아들을 때까지 내가 돌리겠다.' 녹음 테이프를 한 20번 정도 돌렸습니다. 저도 강다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돌려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도 신경질 나서 "야, 이 만큼 들었는데도 모르겠냐?" 그러니까 애들이 뭐라 하는 줄 압니까? "알아야 들리지요." "너 방금 뭐라 그랬니?" 그러니까 "알아야 들리죠." 그래놓고 저희들도 놀라는 거예요. 자기들 입으로 말해놓고 다들 놀라는 거예요. "야, 들으면 아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모르니까 들어도 안 들리네요" 라는 거예요. 지금 그 문장을 잊어버린 것이 안타까운데 칠판에 그 문장을 적어 썼어요. 단어 4개예요. 그래놓고 다시 들어보더니 그 문장이 또렷이 들리더라고요. 모르는 것은 아무리 들어도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영어 공부할 생각 있거든요 제 말을 명심하는 게 좋을 겁니다. 잘 모르는 거 죽자사자 들으면 언젠가는 들리겠지 해도 안 들려요. 그 방법은 포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문장을 미리 외우세요. 다 외운 다음에 들어보면 잘 들려요. 그게 오히려 효과적이고 빠르지 모르는 거 수백번 들어보십시오. 들리는가. 안 들려요. 제가 그 아이들 공부시키면서 그 소리를 듣고 '아! 맞다. 아는 사람은 한 번만 들어도 선명하게 들리는데 모르는 사람에겐 그것을 아무리 들려줘도 안 들린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거기서 눈치를 챘지요. 그래서 어떤 게 그런 것이냐 했더니 제가 내린 결론은 사람의 지혜나 지식이 가미된 것은 듣고 본다고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예가 아까 얘기했던 그림, 음악, 어학 등 많습니다.

예수님이 보인다는 사진 있지요? 그 사진 보면 예수님이 있다 그러지요? 아마 처음부터 잘 안 보였을 걸요. 그 그림 속에 예수님이 있다 하는데 잘 보이지 않아요. 이거 안 보인다 하면 믿음이 없는 거 아닐까? 그게 안 보일 때는 아무리 봐도 안 보여요. 그런데 어느 순간 눈에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보면 잘 보이거든요. 이런 차원이 있어요. 이런 걸 제가 이름 붙이기를 '인간적인 차원' 혹은 '지성적인 차원'이라고 했습니다. 신비한 동물의 세계 보면 정말 신비롭지요. 언젠가 보다가 굉장히 놀랐어요. 암술에다 다른 꽃의 꽃가루를 묻혀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며 촬영을 해 놓았어요. 오래 전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반응이 없어요. (이옥엽)

반응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걸 확대해 가지고 촬영을 했는데... 암술이 그 꽃가루를 털어 버려요. 식물인데...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대단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거 한 장면만 봐도 '진화론'은 말이 안되는 거예요. 우연히 되어간다는 얘기, 말이 안되는 겁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면 얼마나 지혜로운지 말로 다 못해요. 그러나 그 모든 지혜는 본능적인 것입니다. 표현을 바꾸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지혜만 동물에게 주어져 있어요. 사람들이 동, 식물의 그런 반응을 보고 감탄하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인간의 교만이 다소 묻어 있는 겁니다. 저 하등동물에게 저런 지혜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놀라는 거죠. 놀라운 지혜가 그 속에 있지만 생존을 위한 본능적 지혜 그 이상의 지혜는 없어요. 그래서 동물적인 차원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감각이나 본능으로 알 수 있는 것을 모두 동물적인 차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지혜가 살짝 가미되면 그 다음부터는 본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혹시 바둑 두시는 분 계세요? 대흥교회 선배 중에 바둑에 도사같은 분이 계세요. 이 분이 가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자기 회사 두 사람이 내기 바둑을 두는데 옆에서 불쌍해서 못 보겠다 그래요. 왜냐 하면 하수가 상수한테 돈을 걸고 도전을 하는데 이 분이 옆에서 지켜보다가 하지 말라고 아무리 말려도 말을 안 듣는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수가 보이니까. (구송준)

자기는 수가 보이지요 그러나 불쌍한 것은 하수예요. 하수가 왜 지면서 자꾸 도전하는지 아십니까?

될 것 될 것 같으니까. (김혜영)

그런데 결국 안됩니다. 상수는 아주 수가 높아서 옆에서 보니까 내기를 할 만한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수 낮은 사람이 자기 상수의 수준을 짐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둑 두는 분 계시면 알 거예요.

절대로 짐작 못합니다. 그러면 이 상수는 내기를 계속하기 위해서 절대로 많이 안 이겨요. 조절을 해 가면서 그냥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거지요. 오늘 큰일 날 뻔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이 하수는 뭐라고 생각해요?

아, 아깝다. 조금만 잘 했으면 이길 수 있었는데...

못 오를 나무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자꾸 덤비는데 이걸 또 다른 상수는 보면 대변에 알아요. 그러나 이 하수는 절대로 모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의 지혜가 동원된 것은 아는 사람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죽어도 모릅니다. 이런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대한 예술가가 그림을 그렸거나 위대한 음악가가 작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본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그림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아느냐 해도 모르는 사람은 그거 봐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이런 예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래에 유홍준 교수가 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이 있는데 한 번 보세요. 볼만 해요. 그 책을 본 많은 사람들이 탄복을 하는 겁니다. 나도 거기 가 봤는데 나는 아무 감동이 없었는데 어떻게 선생님은 구구절절 감동적으로 그렇게 잘 써 놓으셨습니까? 나도 그거 아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질문을 유홍준 교수한테 많은 사람들이 했나봐요. 그 교수가 대답을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아는만큼 본다. (김혜영)

유명한 말입니다만 그 교수는 그렇게 표현 안 했습니다. 비슷하지만 달라요.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것만큼 보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공익광고에 비슷한 게 나오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가기는 많이 가는데 갔다와서 하는 말이 별 거 없더라. 구경할 것 하나도 없더라 이러면서 물건만 잔뜩 사서 들어오는 거죠. 모르고 가니까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사전에 공부라도 좀 하고 가라고 광고가 다 나오는 겁니다.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요. 공부를 많이 해 가지고 가야 보이는 게 많아요. 모르고 가서 그냥 돌아다니니까 아무 것도 없는 거지요. 사람의 지혜가 가미된 것은 가르쳐 주는 사람에게 열심히 배우면 어느 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차원 중에 어느 차원에 들어갈 것 같아요? 하나님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아야 보인다고요?

지혜와 관련된 것은 알아야 보이는 차원이고 감각과 관련된 것은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높은 차원입니다. 몇 차원이나 더 높은지조차 알 수 없어요.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차원은 어쩔 수 없이 믿을 수밖에 없어요. 믿어야 보입니다. 그 얘기 들으신 적 있어요? “하나님을 보여다오 그러면 믿을 게!” 그러니까 유명한 헬라 교부가 남긴 말이 있어요. “알기 위해서 믿어라!” 그랬어요. 그게 무식한 말일까요 아니면 깊은 진리가 담긴 말일까요?

진리가 담긴 말요. (모두)

진짜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아무 개념없이 그냥 덜렁덜렁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알기 위해서 믿으라 하는 말이 할 말이 없으니까 마구 하는 소리가 아니라 믿음과 관련되면 그 이상의 적합한 말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거 맛있니?” 하니까 “먹어봐라” 이게 정답이지요. 그 속에 당도가 몇 %고 수분이 몇 %고 하는 따위는 대부분의 경우에 별 도움이 안돼요. 사과와 당도가 몇 %면 달고, 꿀은 몇 %여야 꿀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도 몰라요. 먹어보면 알지만... 결국 ‘먹어보면 안다’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 것이냐 하는데요 이것은 먹어 볼 수도 없고, 배워 알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유일한 방법이 믿는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알기 위해서는 믿으라 하는 말이 할 말이 없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깊은 철학이 담긴 놀라운 얘기입니다. 앞으로 예수 믿으라든가, 하나님을 믿으라든가 하는 말을 쓸 때에 자부심을 가지고 사용하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려면 이 용어 외에는 다른 용어가 없어요. 음악에 문외한인 사람에게 저것이 얼마나 좋은지 들어봐라 그러면 안돼요. 실컷 듣고 뭐라 하겠어요? 잠만 오더라. 시끄럽다. 그런 말을 들을 가능성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설명을 해 가면서 많이 공부시켜야 하고 본인은 믿고 따라가 주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듣고 감동이 되는 겁니다.

적어도 인간의 지혜가 가미된 것은 가르치고 배우면 볼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르쳐도 안 돼요. 아무리 가르쳐도 안돼요. 유일한 방법이 일단 믿는 것밖에 없어요. 믿고 들어가야 그 다음 일이 진행이 됩니다. 이런 차원을 ‘영적인 차원’, ‘신적인 차원’이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믿음이란 것이 절대적이고 유일한 방법이지만 사람의 경우에도 그런 예가 많이 있어요. 비유를 조금 더 들면 부부 사이에 있어서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상실된 병을 뭐라 하지요?

의치증, 의부증

그걸 뭘로 고치죠?

믿음으로... 사랑으로...

그것도 약이에요? (웃음) 어떻게 아세요? 다른 병 같으면 고칠 수가 있습니다. 보거나 만져서 해결될 문제 같으면 약을 쓸 수가 있는데 이걸 무엇이고 하니 믿지 않아서 생긴 병은 약을 쓸 수가 없습니다. 별로 없는 데가 아니고 전혀 없습니다. 아주 오래 전에 텔레비전에서 의치증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날 아나운서가 김동건 아나운서이고 정신과 의사들이 여러 명 나왔습니다. 거기 한 여자 분이 등장했는데 얘기를 이렇게 해요. 우리 집에는 전화가 6대입니다. 왜요? 남편이 집에 전화를 걸었는데 안 받았단 말이죠. 어디 있었나? 마당에 있다가 못 들었어요 그러면 마당에 1대, 화장실에 있는데 전화 왔던데 하면 화장실에 1대, 이래 가지고 집안에 전화가 6대입니다. 장보러 갔다가 못 받았는데요. 안 믿는 거예요. 옆집 아주머니하고 같이 갔다 왔다고 증인을 세워도 안 믿어요. 뭐라 하면서?

거짓말... 짜고..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둘이 짜다고 생각하고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텔레비전에서 무슨 방법을 제시한 줄 압니까? 정신과 의사들이 뭐라고 해답한 지 압니까? 병원에 한 번 오세요라는 말 외에는 아무 말도 못해요. 정신과 의사 5-6명과 변호사가 앉았는데도 아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프로그램을 끌고 가야 하잖아요. 그럼 누가 고생을 해요? 아나운서 혼자서 해결을 다 봐야 하는 거예요. 동생 한 명과 같이 보고 있었는데 “아빠, 오늘 김동건이 날리네”라고 하더라구요. 전문가가 나와서 해결책을 제시 못하고 할 말도 없으니 프로그램은 끌고 나가야 하고 김동건 아나운서가 이 소리했다 저 소리했다 하면서 그 시간을 끌고 가는데 아닌 게 아니라 김동건 아나운서 대단하더라구요. 결과적으로 아무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상실되면 해결책이 없다는 겁니다.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의심은 가지만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래도 믿음이 말장난이라고요? 믿는다는 것이 결코 말장난이 아닙니다.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만약 믿음을 상실하면 남자들은 이발소 못 갑니다. 면도칼 어떻게 생겼지요? 그걸 가지고 목 위로 쓱쓱 문지르고 있는데 이발사를 못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해서 못 살아요. 버스타고 가는데 저 운전수가 정신 발작이라도 일으키면 어쩌하나? 이러면 못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 정신병자라고 합니다. 믿음이 완전히 상실된 사람은 정신병자입니다. 이래도 믿음이라는 단어를 우습게 여기겠어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믿음에 근거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믿음이 상실된다면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합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이렇게 소중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한 겁니다. 참 소중한 겁니다.

비유를 하나 더 들지요. 어떤 아이가 학교에서 사고를 쳐 가지고 교장 선생님이 퇴학을 시키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한 번 데리고 와라 해서 데리고 갔더니 요즈음은 이런 교장 선생님이 없을 겁니다. 다만 옛날에는 많았어요. 저 놈의 자식 생긴 꼴을 보니 사고치고 남을 노이네 퇴학시켜! 이것은 3가지 차원 중에서 감각적인 차원이죠. 보니까 사고 칠 놈이네. 이런 차원의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을 붙들고 말합니다. 애가 그렇게 나쁜 애가 아니고, 조금만 지도를 잘 하면 잘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아이를 어느 정도 껴보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인간적인 차원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엄마를 불러다 놓으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학교 선생님들이 학부모님하고 자꾸 싸우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엄마는 무조건 ‘자기 아이가 나쁜 게 아니고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그렇지 우리

아이는 절대 나쁜 아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입이 거친 선생님이 뭐라 하는 줄 압니까? ‘친구 때문에 애가 나쁜 게 아니고 야, 때문에 다른 친구 다 베려났습니다’ 사실 그게 정답일 때가 대단히 많아요. 사실이 그럼에도 엄마는 죽어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선생님 말이 맞을까요? 엄마 말이 맞을까요? 선생님이 맞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진짜 선한 아이로 돌아온다면 교장 선생님 말 때문도 아니고, 담임 선생님 말 때문도 아니고, 엄마 때문에 선행되면 선행진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

엄마 말이 사실이 아닌데요? 사실이 아닌데도 엄마 말 때문에 착한 아이로 될 가능성은 있지만 교장 선생님 이야기나 담임 선생님 이야기로는 안된다는 거예요. 왜요? 맹목적이고 정당한 근거가 없음에도 믿어준다는 것은 그만큼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에 근거한 정당한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근거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그냥 믿어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후자요.

진짜요? 신랑이 바람을 피우고 사고를 치고 돌아다녀도 왜 그러느냐고 따지고 야단쳐도 별 효과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믿고 앉아 있으면 약이 더 되는 겁니다.

적어! 적어! (이희근 집사, 부인 보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증거를 대라!’ 했을 때 증거를 대라 하는 이 말이 참 무식한 거예요. 증거라는 게 몇 차원 같습니까? 1차원입니다. 사람의 모든 관계가 1차원으로 걸려 있으면 이걸 정말 피곤합니다. 법대로 하자. 부부 사이에 법대로 하자. 이걸 끝난 거예요. 그렇죠? 법대로 하자가 뭐예요. 그건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라 동물적인 관계입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진짜 중요한 것은 증거를 대가면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증거를 가지고 따지자는 것은 스스로 관계를 깨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 단계는 최소한도 올라가야 합니다.

대학교 처음 가서 영어 시험을 봤는데 미국 사람이 불러주고 시험을 쳤는데 맞으면 C(correct), 틀리면 I(incorrect)로 답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 맞았다 했는데 답지 돌려주는데 보니까 뺑뺑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럴 리가 없는데 가만 보니까 착각을 해 가지고 거꾸로 써 놓은 거예요. 그래서 백점이 뺑뺑이 된 거지요. 그래서 답지를 들고 올라갔습니다. 가서 “제가 incorrect하고 correct하고 착각을 해서 거꾸로 써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대로 알아들었습니다.” 이러니까 가만히 듣더니 그 자리에서 전부 수정을 하더라고요. 백점으로 고쳐가지고 다시 줘요. 몇 차원이죠?

2차원.

믿어준다는 면도 있지만 상황을 보니까 그럴 것 같다고 이해가 되기 때문이라면 2차원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서양 사람들은 남의 말을 믿어준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죠. 그걸 1차원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지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게 어디 거짓말을 하는 거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1차원적인 사고방식으로 너무 많이 살아요. 그런데 참고로 한국에 살려면 증거가 없으면 믿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각한 이야기 하나만 더하죠. 한국이 얼마나 1차원적인 문화인가? 이거 하나 아실 필요 있습니다. 학교에서 숙적하다가 교실에 불이 난 걸 알았습니다. 제일 먼저 뭐 해야 하는지 아세요?

신고

아닙니다.

불꺼야죠.

아닙니다.

도망가야죠?

그건 정말 큰 일이죠.

잠을 자지 않았다는 증거를...

그렇죠.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어떻게 증거를 대죠?

일지부터 쓰나요?

예 맞습니다. 일지부터 써야 됩니다.

불이 타고 있는데도요?

타더라도 그래야 합니다. '몇 시에 순찰 중 화재 발견' 이거 써 놓고 그 다음에 불을 끄든지 신고를 하든지 해야 됩니다.

와, 미치겠다.

사람을 믿어주지 않으면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기자가 오거나 감사원에서 왔을 때 제일 먼저 당직일지부터 압수하거든요. 일지에 '순찰중 화재 발생'이라고 쓰여 있으면 이 사람은 임무를 제대로 한 것으로 되어서 별로 문책이 안됩니다. 일지가 비어 있으면 잠자다가 늦게 튀어나온 것밖에 안돼요. 그래서 교실이야 타든지 말든지 물 한 바케스만 뿌리면 끝날 일이라도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는 일지부터 써야 합니다.

불부터 끄면 안돼요?

그러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러나 그러다가 제대로 끄지 못했다면 다 뒤집어 쓰는 겁니다. 학교에 무슨 사고가 나서 선생님들이 쫓겨나는 경우 중에는 나쁜 선생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 쫓겨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사명감이나 책임감이라는 것이 오히려 더 불리하게 작용하도록 되어있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복지부동이라는 말이 한 때 유행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도가 이런 식이니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정의롭고 의로운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나라는 결코 증거를 제시해서 증명을 하는 방식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문화가 그렇다는 것을 알고 계십시오.

어때요 답답하지 않아요? 1차원적인 사고에 젖어 있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최소한으로 2차원, 사람의 말을 믿을 줄 알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차원으로 가야 하는데 우리나라 문화는 그거 꿈꾸지 마세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밖에 나가 실수 많이 하는 것 중에는 그쪽 문화를 이해 못해서 곤란한 경우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늑대들이 볼 때는 순진하기 이를 데 없는 양들이지요.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더러 믿어 주지요?

교회 안에서도 믿어 주지 못한 것이 더러 있더라고요. 믿음이라는 이 차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데 정말 짐승같이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겁니다. 최소한도로 가정에서는 3차원까지 가야 되지 않겠어요. 1차원적인 가정 이야기를 설교 때 한번 드렸는데 기억 나세요?

어느 장로님 이야기 말입니다. 부인이 시장갈 때 콩나물 값까지 얻어서 가는 부인이 있다고 했지요? 숨이 막혀요. 남의 일이지만 그 집 이야기 들으면 숨이 막혀요. 그게 1차원 아닙니까? 두부값, 콩나물값, 왕복 버스비 얻어가지고 시장간다는 게... 그런데는 죽어도 (시집)가면 안돼요.

우리 삶에도 이런 3차원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믿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음을 확실하게 합시다. 그리고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상하고 아름다운 말인지 이해해 둡시다. 그림의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림에 입을 갖다대거나 귀를 갖다대면 얼마나 우스울까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것은 그것보다 더 우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기나요?

이쯤에서 처음 성경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이 아버지는 자기 자식을 고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있다라고 결론이 났습니까?

반반으로..

그런데 그 분이 자기 아들을 고칠만한 믿음이 있다면 아쉬운 소리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정확하게 표현

하면 다급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고친다는데 자기 안을 들여다 보니까 고칠만한 믿음이 현재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믿음이 없는데요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못 고치죠.

그러면 안되잖아요. 뭐라 해야 돼요? 내가 믿나이다 해야지요. 믿나이다 해놓고 보니까 사실은 없으니 예수님께서 그 믿을 없애는 것마저도 도와 주셔야 됩니다. 이게 아버지의 심정이예요.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없네?’ 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습니다 해 놓고 도와 달라 하는 거지요. 믿음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 본문을 택했느냐 하면 우리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믿음에 대해서 가져야 할 자세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믿음이라도 내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보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필요를 느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믿음을 갖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런 믿음이 나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관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복인지 모릅니다.

성경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를 대라고 한다면 여러가지로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공감할 수 없는 것은 증거라는 것은 1차원에 해당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보고 확정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보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능력 바깥의 것을 어떻게 끌어들이요? 무조건 믿는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걸 전제로 해 놓고 그래도 증거를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류의 증거는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증거가 없는 이유는 증거를 제시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감각과 관계된 것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데 “증거 대봐” 2차원으로 들어갔는데 받기는 뭘로 받아요?

1차로.

왜 끌어 내려요? 제대로 된 인간관계라면 증거 대봐라는 말 하면 안돼요. 제대로 된 인간관계가 다 끊어졌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제가 여학교 있을 때 약간 좀 별난 여 선생님 한 분이 있었어요. 장난치다 보면 뒤에서 끌어안고 좀 그래요. 와이셔츠 차림이었는데 어찌다 잘못해서 등에 입술 자국이 찍혔나봐요.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다른 선생님들이 오늘 큰 일 났다는 겁니다. 너 오늘 집에 가면 죽었다 하는 거예요. 그 때 말 잘했다. 내가 집에 가서 무슨 일이 생기는지 내기할래? 집에 가서 “여보 등에 뭐 하나 찍혔단다. 한번 볼래?” 보더니 “아! 그럴 수 있어요. 나도 버스타고 가다가 기사가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앞 사람 등에 하나 찍었어요.” 그 다음날 학교 가서 내기한 선생님들한테 다 이겼지요. “그런데 내가 버스를 타고 다니냐? 어찌다 찍혔는지 묻지도 않고 자기 이야기만 하고 치우더라.” 이러니 그 분들이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사람의 심리가 얼마나 교묘한지 남의 집에 싸움이 나야 시원한데 이걸 너무 싱거운 거죠. 부부 사이에 이 정도의 믿음도 없어서야 되겠어요? 저기 뭐야 춤추는데 있죠?

카바레...

우리 집 사람이 몇 번 갔는데 “거기 경치 좋더라.”고 그래요. “뭐?” 하니까 “야한 여자들 때문에 남자들 정신 다 빠지겠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집사람을 그런데 보내요? 내가 보냈나요? 자기가 갔지. 직장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갈 수도 있는 거죠. 간다고 뭐 별일 생기나요? “그래/그렇게/ 좋은데 있으면 다음에 나 좀 데려가도!” 그랬는데 전 아직도 구경 못했어요. 이제 신학교까지 갔으니 야한 카바레는 영 졸업이겠죠.

믿음이라는 것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된다는, 그렇게 소중한 것임을 기억하면 우리 스스로 이 높은 차원에서 기어 내려와서 증거 대봐라 이런 식의 이야기는 안 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납득시키기란 대단히 어려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사람이 사는 방식에도 이런 점이 있음을 인정하고 적어도 하나님은 이런 차원이니까 “증거를 대라, 하나님 데리고 와봐라!”라는 질문에 하나님은 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건 필요합니다.

가청거리, 가시거리 아시죠? 사람의 가청거리가 얼마쯤 되냐 하면 맑은 날 높은 산에 올라가면 어느 정도 보이느냐 50km쯤 보일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키는 얼마쯤 될까요?

사람만 해요.

하나님은 이 광대한 우주를 만드신 분입니다. 사람만한 키로 우주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이것 다 만드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으니까요.

어, 잠깐, 하나님 형상이라는 말은 키, 체중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 다시 설명되어야겠네요. 현충일 청년 집회 때 설명할게요. [참고, 홈페이지 설교에 보시면 6월 6일 날짜로 된 것이 셋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공부하기로 하고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예요. 가시거리 50km밖에 되지 않는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겠다는 얘기는 끝도 없다는 이 우주전체를 봐야 믿겠다는 거지요. 50km가 멀어 보이지요? 끝이 없다는 우주와 비교하면 이 50km가 얼마쯤 된다고 생각해요? 바로 눈앞이에요. 한치 앞도 못 보는 게 사람의 눈입니다. 눈이 먼 것과 똑같아요. 이 눈 가지고 하나님을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겁니다.

사람의 귀가 모든 소리를 다 들습니까? 너무 크면 못 들어요. 개는 듣는데 사람은 못 듣는 소리가 있어요. 개가 듣는 소리를 누가 스피커로 만들었는데 소리가 얼마나 크던지 스피커를 눕혀 놓고 탁구공을 넣으니까 공이 튕겨 올라오더라요. 공기의 울림에 공이 튀고 있는데도 사람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도 범위가 좁아요. 이런 소리를 가청주파수라 하지요. 색깔도 마찬가지입니다. 볼 수 있는 색을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보고 아는 것도 아니요 배워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란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자체가 얼마나 복이 많은 것인지 모릅니다. 의부증, 의처증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남편과 아내를 믿을 수 있다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보신 적 있으면 이해가 될 겁니다. 보고 믿겠다는 말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일 뿐입니다. [같은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한 글이 '정경이 낮은 분은 이리 오세요'란에 있습니다.]